

KINX IR Book

For Investors and Stockholders

IR 팀(ir@kinx.net)

2024년 2월

The KINX logo is positioned in the bottom right corner. It consists of the word "KINX" in a bold, green, sans-serif font. Behind the logo, there is a dynamic graphic of numerous thin, green lines radiating outwards from a central point, creating a starburst or sunburst effect that extends towards the top right corner of the page.

KINX

I. 기업 현황

II. 서비스 구조

1. IDC, Cloudhub
2. IX
3. CDN, Cloud

III. 서비스 특징과 경쟁력

IV. 전망 및 투자포인트

※ Disclai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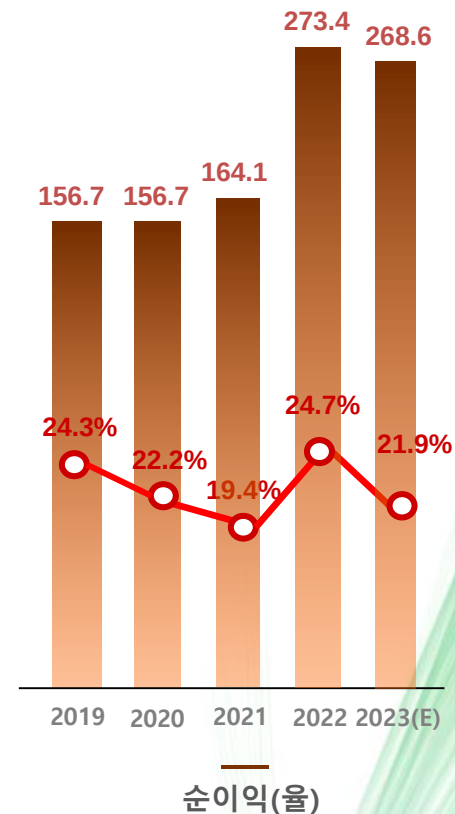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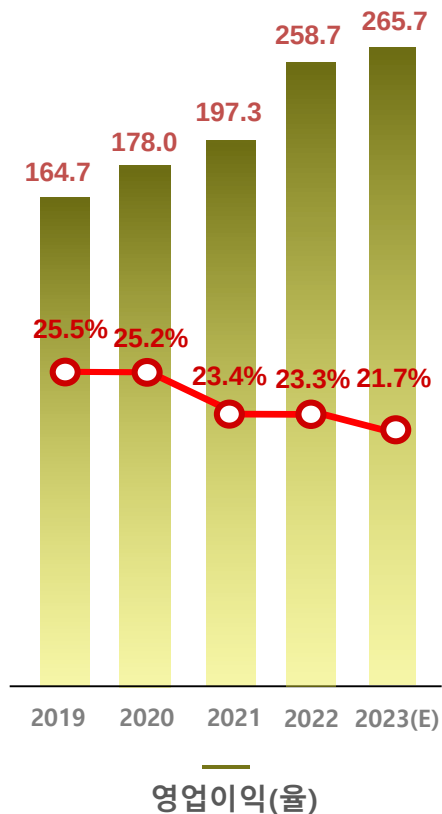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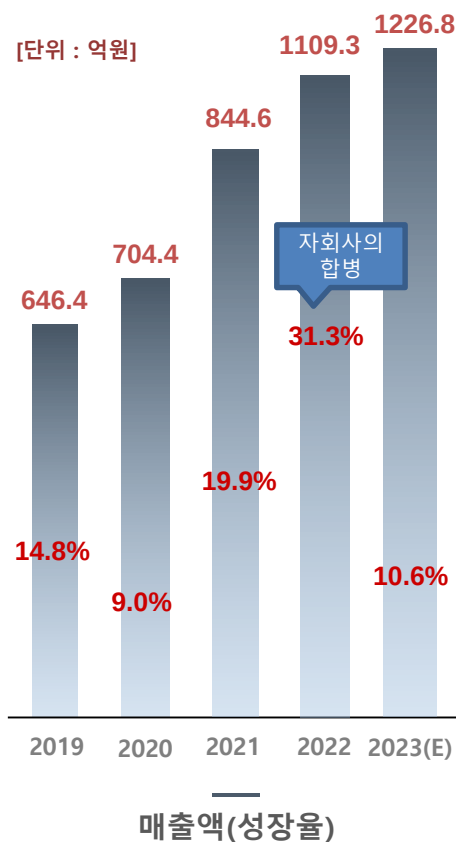
본 자료는 회사의 현황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전망 및 투자포인트 등 일부 내용은 연관 산업 동향에 대한 일반자료 및 당사의 미래 계획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KINX(Korea Internet Neutral eXchange)는 기업 고객을 대상(B2B)으로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IDC, IX, CDN, Clou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70% 이상이 기술 및 개발, 컨설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명	(주) 케이아이엔엑스 (KINX, Inc.)
설립일	2000년 6월 17일
대표이사	김지욱
주요서비스	IDC, IX, CDN, Cloud
본점/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7층, 10층
지점/중앙센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대림아크로텔 5층
규모	매출액(E) : 1226억(연결, '23 기준), 임직원수 : 155명
홈페이지	http://www.kinx.net

KINX는 중립적 회선연결 서비스와 중립적 데이터서비스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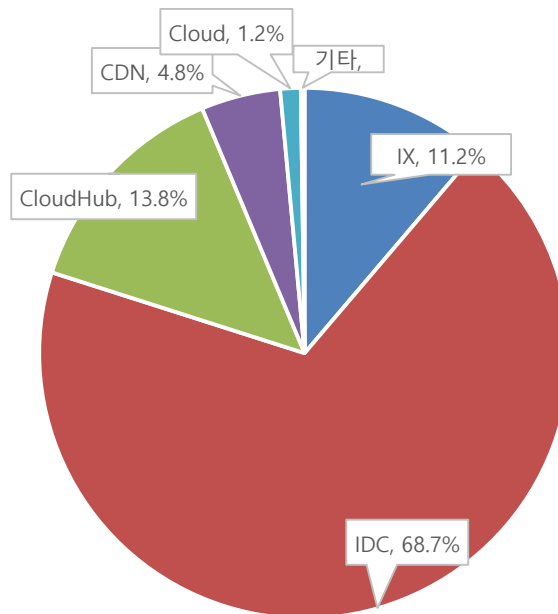
2022년 연결매출 1천억원을 돌파하였으며, 2023년말 연결기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 17.1%, 평균 영업이익률 23.8%입니다. 자회사를 제외한 당사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12.3% 성장한 878.8억원(추정)이며, 영업이익률은 24.8%입니다. 국내외 고객들의 당사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량 및 클라우드 허브 수요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대의 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해 매출의 증가는 대체로 기존 고객들의 기여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당해 신규 고객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KINX가 제공하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는 IDC, Cloudhub, IX, CDN,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IDC 서비스와 Cloudhub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IDC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약 69%, Cloudhub 서비스는 약 14%, IX 서비스는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Cloudhub 서비스는 IDC 서비스의 네트워크서비스 중 하나로, 국내 클라우드시장 확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에 오픈하는 과천센터로 인해 IDC 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별 매출비중(별도매출 기준)



[Data] 서비스별 매출 비율(2023년 별도매출 기준)

KINX는 도곡센터를 시작으로 네트워크 연결된 데이터센터들을 확장, 운영하면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센터인 도곡센터를 중심으로 가산, 상암, 분당 지역에 LGCNS, 삼성SDS, Hostway와 같은 중립적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들의 IDC를 임차하여 5개 센터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홍콩에는 네트워크 거점(PoP)을 두고 있으며, 인프라 추가 확장을 위해 과천지역에 신규로 자가 데이터센터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과천 신규 데이터센터의 투자 및 센터 규모 등의 상세한 내용은 맨뒷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서비스는 B2B 인프라 비즈니스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 구조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의 유형	CP (Contents Provider)	인터넷 콘텐츠(방송, 영화, 게임, 음원, 언론, 어플리케이션 등)을 생산하거나 보유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광범위하게 서버에 콘텐츠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일반기업들도 CP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CSP (Cloud Service Provider)	개인이나 기업 등을 상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주체는 대체로 기업고객(CP)입니다.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개인이나 기업 등을 상대로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ISP 고객은 MSO(종합 유선방송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 용어	랙 (Rack)	서버, 스토리지, 인터넷통신장비 등을 장착하는 규격화된 선반을 말합니다. 표준랙 1개에는 42대의 서버를 장착할 수 있는데, 발열 등의 이유로 20대 내외의 장비를 장착합니다.
	상면 (Rack space)	Rack을 놓는 공간을 말합니다. 상면의 규모로 데이터센터의 규모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상면이 얼마나 되는냐는 Rack을 몇 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규모인지를 의미합니다.
	대역폭 (bandwidth)	네트워크 회선의 용량(트래픽의 양)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통신 트래픽이 한꺼번에 흐를 수 있는 최대 범위나 폭을 의미합니다. 1Gbps 대역폭이면 초당 1GB의 인터넷 트래픽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회선의 용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계접속 (Transit)	흔히 트랜짓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짓은 통신에 있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교환점을 통하여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KINX의 데이터센터는 다양한 회선사업자의 회선들이 인입되어 있어 고객들에게 Transit 을 제공함으로써 KINX를 거쳐 원하는 회선사업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IDC 서비스는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인터넷 네트워크 회선이라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나 스토리지, 인터넷 통신장비 등의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특수한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버호텔'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대규모 전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센터에는 대규모의 인터넷 네트워크 회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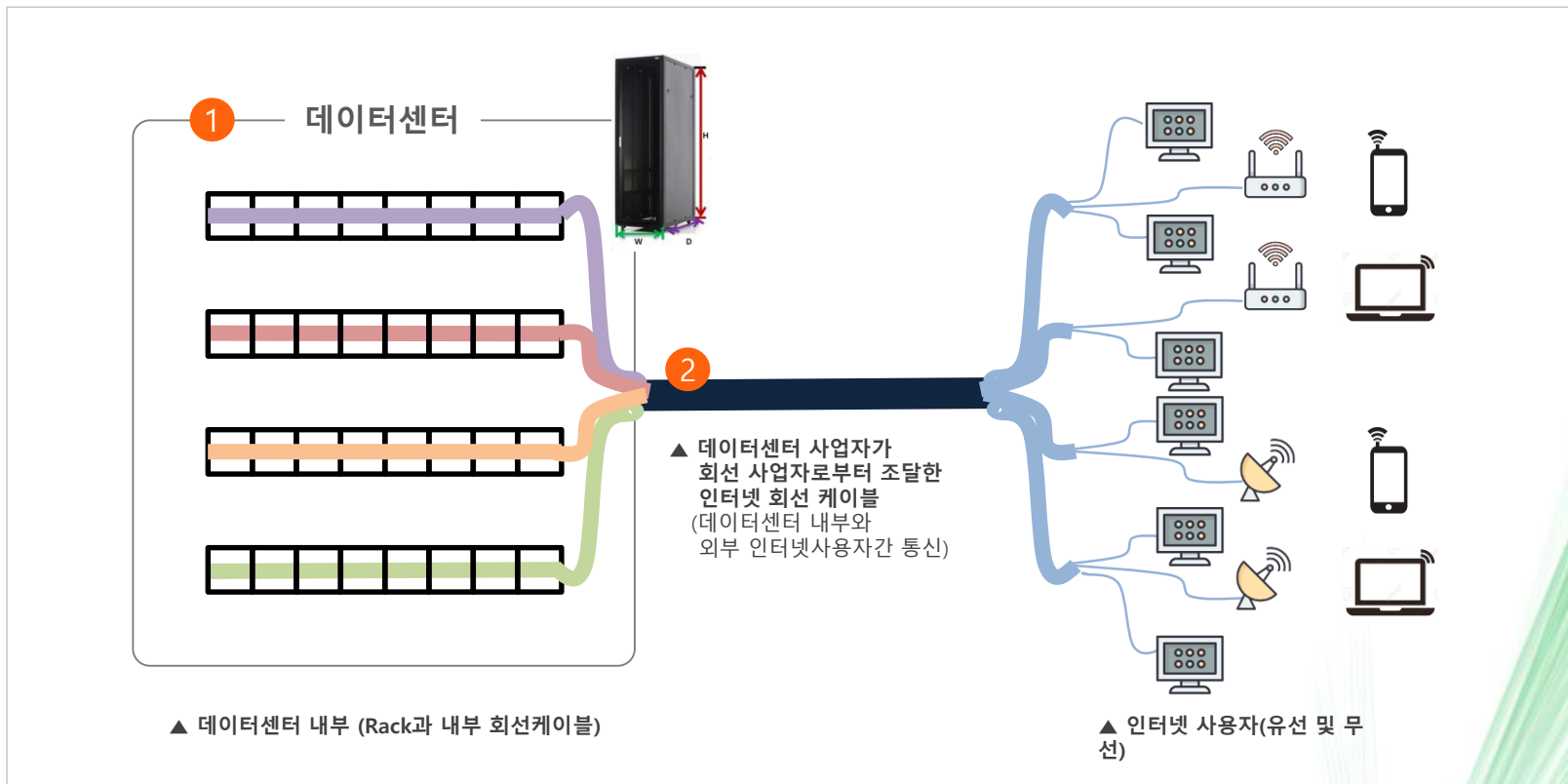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72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 제3조(규모)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sqm(약 151평) 이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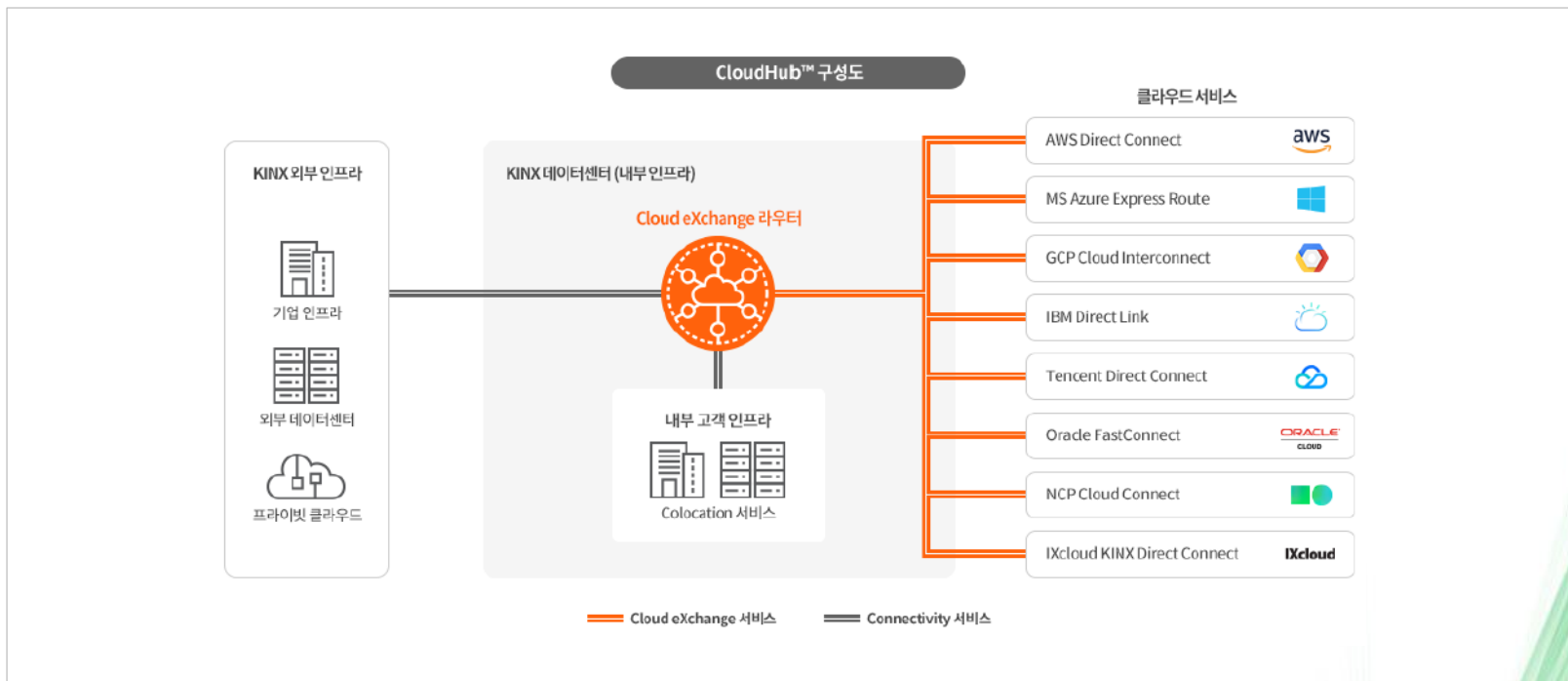
IDC 서비스의 요금 부과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전산장비의 수량과 필요전력량에 따라 ① **공간사용료**를 부과하고, 고객의 전산장비와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기본으로 고객이 원하는 국내외 추가 연결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량에 따라 ② **회선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즉, 매월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공간(상면, Numbers of Racks)과 회선 트래픽량(Network traffic)에 따라 매월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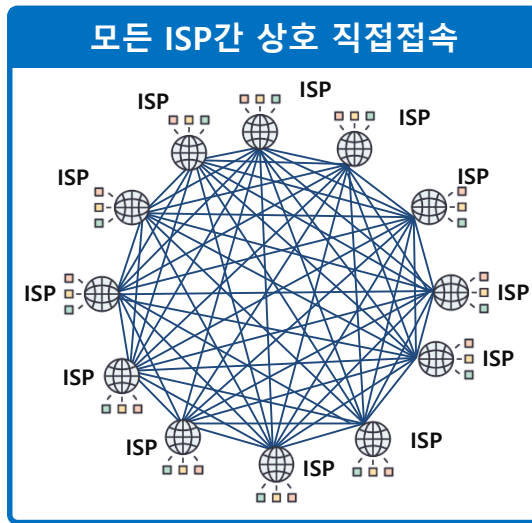
IDC 서비스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부 고객 전산자원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회선 연결(Local IP Transit)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외 회선 연결(국제 IP Transit), 센터 내 입주하거나 당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간의 연결(Inter-Connection), 데이터센터 간의 연결(DCI), 전용회선 서비스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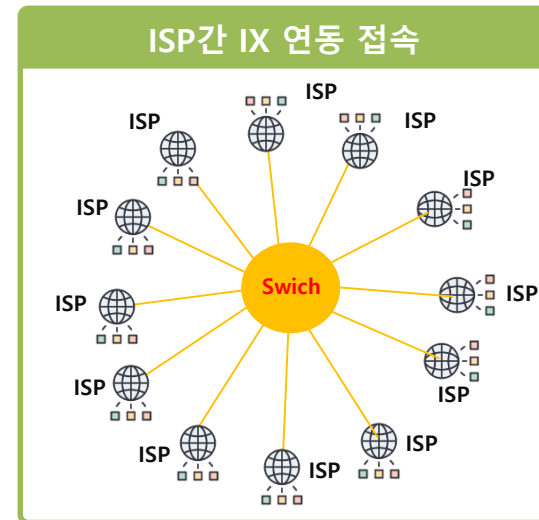


▲ KINX가 제공하는 클라우드허브 인터커넥션

IX는 자체 네트워크 망을 보유한 ISP와 ISP간의 망대망간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인터넷통신 교환시설입니다. 물리적으로 '스위치(switch)'라는 통신장비를 운영하는 있는 시설입니다. IX 고객인 ISP는 자신의 네트워크 망과 연결된 회선을 스위치에 연결함으로써 이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타 ISP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비용, 비효율



저비용, 고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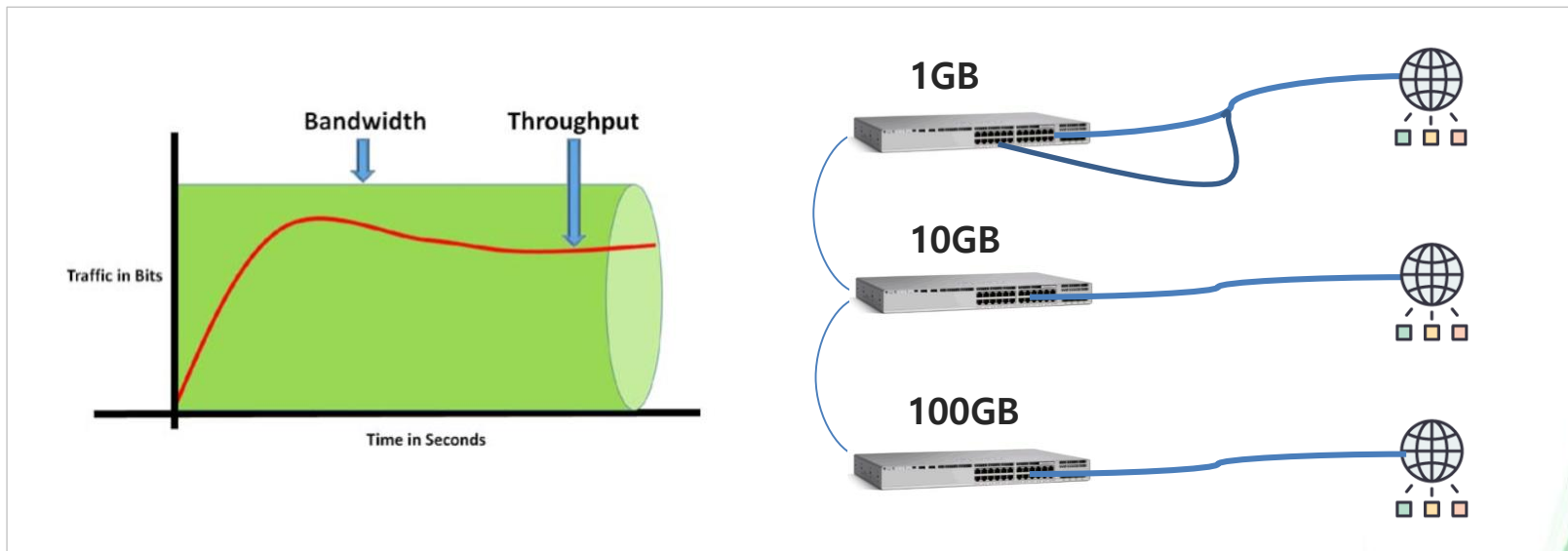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망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용자에게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Switch

IX서비스의 요금은 고객들이 IX 스위치에 연결한 대역폭과 회선 포트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IX 스위치의 대역폭은 1GB, 10GB, 100GB 등으로 구분하며, 대역폭 당 책정되어 있는 요금에 회선 포트수에 따라 전체 요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역폭 내의 트래픽 변화는 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트래픽이 대역폭을 넘게 되면 포트 연결을 추가하여 요금을 추가 부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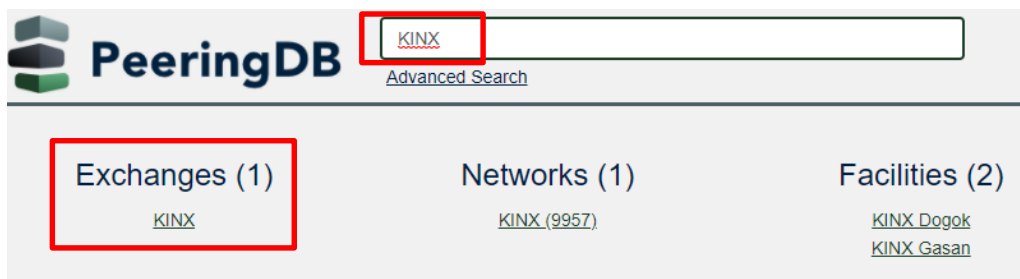
- **대역폭(bandwidth)**이란, 통신 트래픽이 한꺼번에 흐를 수 있는 최대 범위나 폭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1Gbps 대역폭이면 초당 1GB의 인터넷 트래픽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통로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 IX Switch

KINX IX 고객은 인터넷 사용자 망을 운영하는 ISP와 콘텐츠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송하고자 하는 CP, CSP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P에는 딜라이브, 현대HCN, LG헬로비전, ABN 등과 같은 MSO와 SO, 국내외 회선사업자가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드랍박스과 같은 CP, 아마존, MS, 오라클, 구글, IBM,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CSP들이 있습니다.

“ www.peeringdb.com ”



국내 ISP(MSO/SO) 부문



국내 기타 ISP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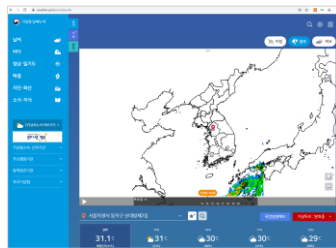


국내외 CP/CSP 부문



CDN서비스는 인터넷 콘텐츠를 분산해서 전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서버에 일정 정도 동시 접속하는 인원이 많이 몰리더라도 접속 불가나 접속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CDN서비스의 요금은 기본적으로 전송하는 콘텐츠의 트래픽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상청 홈페이지



▲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e교과서 배포)



▲ 청담러닝(어학교육)

고객은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등의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 상에서 클라우드 웹페이지를 통해 동일하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은 클라우드에서 생성한 클라우드 가상서버(VM)의 수량, 가상서버와 인터넷 사용자간의 통신하는 트래픽 양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됩니다.



IXcloud는 KINX가 2012년 9월부터 상용서비스를 하고 있는 Public Cloud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쉽게 구축하고 대규모로 확장이 가능한 오픈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OpenStack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세계 18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한 Open Stack은 AWS (Amazon)와 같이 대규모로 운용중인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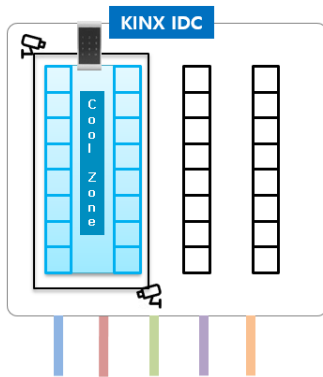
KINX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시스템 운영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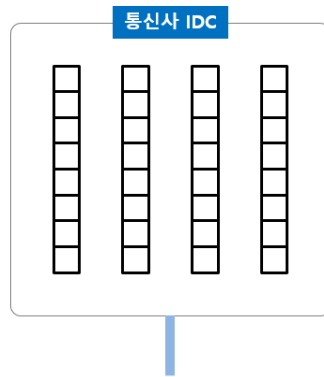
KINX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경쟁력은 중립적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중립적 서비스라 함은 고객에게 당사의 정책을 강요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센터 환경 구성이나 네트워크 회선 선택 등 다양한 인프라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운영이나 네트워크 정책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립적 데이터센터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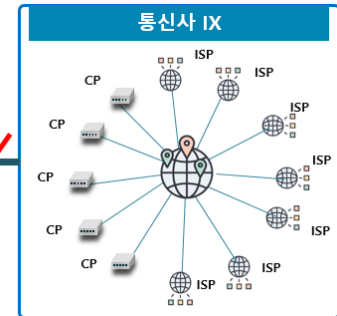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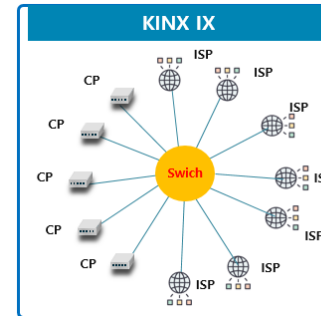
1. 고객의 정책(요구)에 따른 다양한 상면환경 구성
2. 다양한 회선공급자의 네트워크 회선 인입
 - 고객의 회선 선택권 및 회선비용절감
 - 회선 이중화 가능
3. 당사의 기술/관제 인력이 직접 관리 및 운영

→ 고객의 정책(요구)에 따름

1. 통신사의 IDC 정책에 따른 상면환경에 따름
2. 해당 통신사의 네트워크 회선만 인입
3. 표준화, 규격화 되어 있어 대체로 IDC 운영 인력은 외주화

→ 통신사 정책(요구)에 종속

중립적 IX



IXP 통한 직접 연동 (P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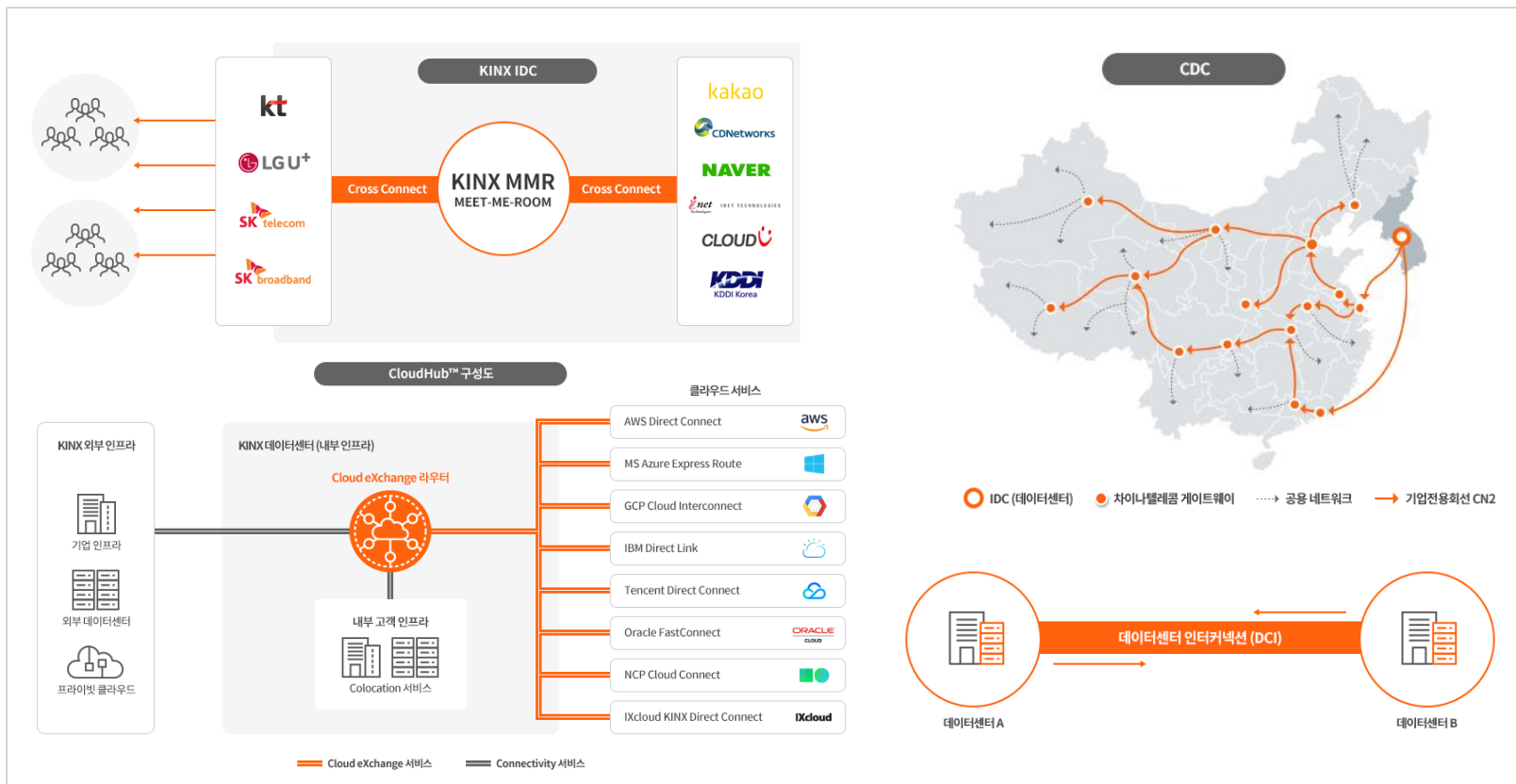
1. 사업자 **자유선택** 가능
2. 낮은 비용 (Only Port fee)
3. Short Routing path

ISP를 통한 상호 연동 (회선)

1. 사업자 선택 권한 없음
즉, **IXP에 종속 됨**
2. 높은 비용 (Port + Traffic비용)
3. Long Routing path

KINX의 데이터센터는 타 데이터센터 대비 다양한 네트워크 옵션이 제공됩니다.

당사의 IDC 서비스 매출 중 네트워크 서비스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내 시장가격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격과 마진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는 네트워크 회선 용량이 커짐에 따라, 회선 용량 단위당 조달원가가 감소하고, 집선효과와 같은 운영효율을 증가시켜 마진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고객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입니다.

2018년부터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국내 클라우드 전환율이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CSP들로 인한 데이터센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SP : Cloud Service Provider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전망

성장세는 확실하다. 단순 규모 뿐 아니라 전환율도 높아지고 있다

(십억원)	클라우드 시장					클라우드 시장 시나리오별 추정					
	'14	'15	'16	'17		'18E	'19E	'20E	'21E	'22E	'17~'22 CAGR
시장규모	524	766	1,189	1,513	시장규모(Scenario1, Bear)	1,998	2,421	2,724	3,027	3,330	17.1%
클라우드 전환율				5%	클라우드 전환율	7%	8%	9%	10%	11%	
YoY Growth		46.3%	55.2%	27.3%	YoY Growth	32.0%	21.2%	12.5%	11.1%	10.0%	
시장규모	524	766	1,189	1,513	시장규모(Scenario2, Normal)	1,998	3,027	3,935	4,843	5,751	30.6%
클라우드 전환율				5%	클라우드 전환율	7%	10%	13%	16%	19%	
YoY Growth		46.3%	55.2%	27.3%	YoY Growth	32.0%	51.5%	30.0%	23.1%	18.8%	
시장규모	524	766	1,189	1,513	시장규모(Scenario3, Bull)	1,998	3,330	4,540	5,751	6,962	35.7%
클라우드 전환율				5%	클라우드 전환율	7%	11%	15%	19%	23%	
YoY Growth		46.3%	55.2%	27.3%	YoY Growth	32.0%	66.7%	36.4%	26.7%	21.1%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데이터센터 산업, 클라우드 수요 업고 급성장(2)

윤현기 기자 | 송인 2020.09.13 09:00 | 댓글 0

통신사·SI 기업 위주 시장 성장...건설 투자업계도 본격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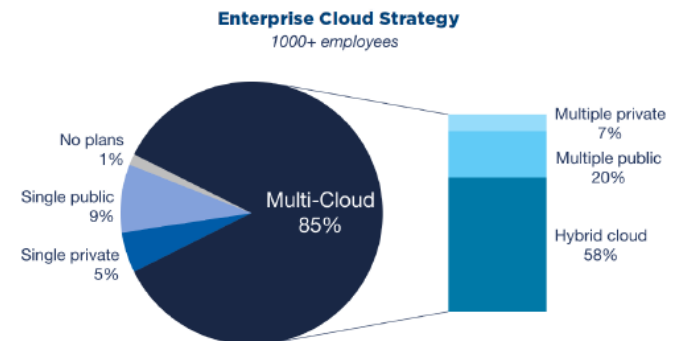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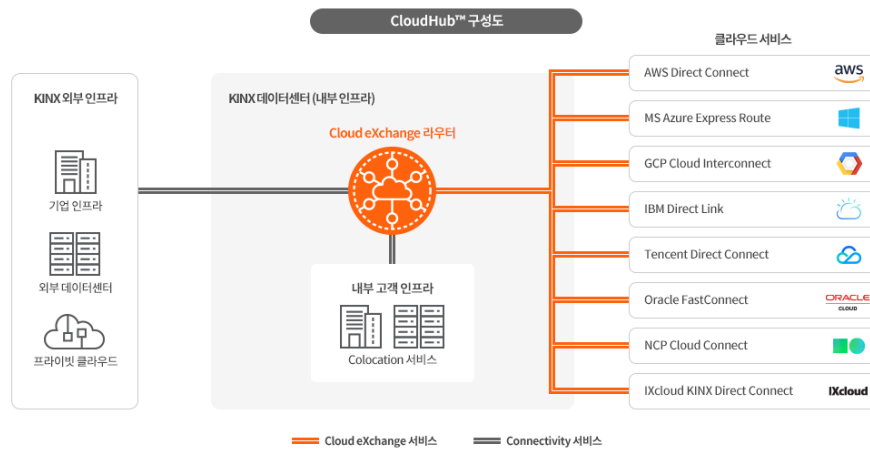
[데이터넷]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 외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및 클라우드 수요 확산에 따라 통신사와 시스템 통합(SI) 기업들도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은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 5G-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대외 고객들을 유치하는 코로케이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KINX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허브(Cloudhub)는 국내에서 최다 CSP와 클라우드 직접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허브는 멀티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네트워크 비용을 줄여주고 빠른 속도의 클라우드 접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클라우드 허브 수요는 현재도 지속적인 회선 연결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 전환율 상승과 국내 최대 IDC 사업자인 KT와의 클라우드 허브 공급 MOU 등을 기반으로 수요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ulti-Cloud

멀티클라우드란 클라우드 사업자 'Big4(AWS, MS, IBM, Google)'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선진국인 미국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한국 기업 IT 69%가 IT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 중이고, 이 중 81%가 복수 사업자의 클라우드를 계획 중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혼용하면 종속성을 분산시킬 수 있고, 서비스 별 장점을 취사 선택할 수 있음. 이 기종 클라우드의 통합 운영 관리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연동 플랫폼(Cloud eXchange)의 중요성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Enterprise 기업 중 58%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성을 검토
(Rightscale 2017, State of the Cloud Survey)

KINX는 20년 이상의 서비스 노하우와 기술적 전문역량으로 다양한 업종의 국내외 기업과 정부기관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NX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 레퍼런스는 기존 고객 뿐 만 아니라 잠재 고객들에게도 신뢰와 안정감을 주고, 고객 유지 및 영업 경쟁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kao

amazon

Google

NAVER

D'LIVE

Microsoft

KOREACENTER

SAMSUNG
삼성SDS

ORACLE®

Alibaba.com™

NBP
NAVER
BUSINESS
PLATFORM

Accelerating Your World
CDNetworks

ncia
정부통합전산센터
National Computing & Information Agency

기상청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본시장 IT 파트너
koscom
www.koscom.co.kr

KINX

당사의 국내외 기존고객과 잠재 고객들이 영위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영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OVID 19 등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정착,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데이터센터 이중화 정책 등은 인터넷 기반 산업의 성장과 확대를 보다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KINX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비즈니스 기업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연결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發 '집콕' 확산에 주목받는 데이터센터 관련株

조선비즈 | 정민하 기자 | 입력 2020.04.03 08:11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관련주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금융주간지 배런스는 1일(현지 시각) 데이터센터 관련주가 각광 받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가격리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데이터센터란 컴퓨터 시스템·통신장비·스토리지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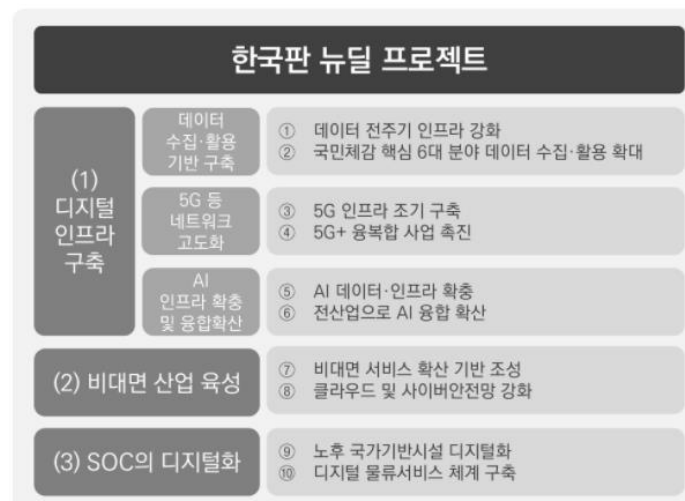
비대면 시대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연합인포맥스 | ⓒ 승인 2020.06.16 09:14 | 댓글 0

코로나 장기화..“데이터센터 투자 인기는 갈수록 커질 것”

건설경제 | 기사입력 2020-08-04 06:00:16

코로나19 확산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금융권 투자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센터 투자 매력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중략, 오른쪽 계속)



이광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은 지난달 26일 “5G(5세대)망, 데이터센터, 스마트 산업단지 등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디지털 강국인 한국에서도 (미국) 에퀴닉스처럼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X는 인프라 확장을 위해 2024년 3분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가 데이터센터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통해 고객에게 대규모 자원운용 공간과 최첨단 인프라 설비, 보다 강화된 중립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KINX의 과천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고사양의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네트워크 집적도가 높은 전략적인 고객 유치를 기대하며 사전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를 통해 KINX는 한 단계 더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중립적 데이터센터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포지셔닝을 보다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과천 신사옥과 데이터센터 가조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신규 데이터센터는 기존의 센터들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증설되는 센터입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부지 내 함께 지어지는 사무동 건물과는 구분되며, 데이터센터는 KINX가 전부 투자하여 건설하고 운영합니다.

• 과천 데이터센터 관련 추정 참고 정보

1. 전체 투자비 : 약 1600억원 규모

- 가. 데이터센터에 해당하는 건물, 시설비 전체 예산규모임.
- 나. 자체 내부보유 현금 및 공사기간 이익/현금흐름, 저리의 산업시설대출로 전체 투자비 충당 가능

2. 건설 및 운영 규모

- 가. 수전용량 2만kw(20Mw), 별도 예비수전 20Mw, 총 40Mw
사용전력량 1만kw 이상 수준 예상(현재 전력량의 3배 수준)
- 나. 상면(Rack) 2000~2500개(현재 상면의 약 1.4배 수준)
- 다. PUE 1.4 목표(현재 1.5~1.6 수준), 친환경 에너지 도입 예정

3. 운영/수익 목표

- 가. 2024년 3분기 내 서비스 오픈 및 2025년 말까지 80% 고객 입주 목표
- 나. EBITDA 기준 영업이익을 차년도(2025년도)에 손익분기 돌파
- 다. 감가상각비 연간 100억 내외 예상



THANKS

for your attention

KINX

© KINX Inc. All Rights Reserved.